

책 반 값에 읽고 기증도 하고 '북리펀드' 운동 아직은... 판매량 10% 수준... 호응 저조

출판계가 독서 문화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교보문고, NHN 등

북리펀드 운동은 독자들이 구입한 책을 다시 서점에 기증하면 책값의 50%를 돌려주고 반납된 책은

12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9월의 북리펀드 대상 도서 2만권 중 판매기간인 9월 한 달간 판매된 책은 2천10권이었으며

대상 도서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지식 e-SEA-SON 1'(북하우스)였으며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여성신문사), '크리에이티브 마인드'(한겨레아이들)

광주시향 244번째 정기 연주회

17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4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최승환(연세대 음대교수)씨를 객원지휘자로 초청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버의 오페라 '오베로' 서곡, 질은 종교적 색채가 느껴지는 프랑크의 '교향곡 라단조'가 공연된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의명(한양대 음대 교수)씨가 '스코틀랜드 민요를 모티브로 한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을 협연한다.

피아니스트 성지영 귀국 독주회

오늘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성지영 귀국 독주회가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성 씨는 이번 공연에서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제 1권-전주곡과 푸가 BWV 866', 프랑크의 '전주곡, 코랄과 푸가 D단조', 모차르트의 '소나타 F장조 K.332',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 7번'을 들려준다.

전남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성씨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독주회를 연 바 있다.



1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테마 광장에서 열린 '방금 생긴 합창단' 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엔날레를 보고 느낀 점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

07 일제강점기 08

'수상한 교육문화 공동체-결'... '방금 생긴 합창단' 26일까지 매주 토·일 공연

'첫번째 본 것은 피라미드/두번째 본 것은 하얀 파도/바람과 천이 만났네/신기하고 놀라워요/비엔날레 재미있네'

주말이었던 1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테마광장 무대에서는 '방금 생긴 합창단'의 공연이 열렸다.

이날 무대에 오른 30여명의 어린이들은 전래 동요 '산도깨비'를 개사한 곡을 불렀다.

이날 무대에 선 합창단은 이름 그대로 '방금' 생겼다. 3시간 전 전시장에 도착해 작품들을 둘러보고, 함께 모여 노래 놀이를 하며 가사를 만들었고 무대에까지 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시민프로그램으로 기획한 '방금 생긴 합창단'은 '수상한 교육문화공동체-결'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들은 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카메라에 담았다.

설명을 붙여 감상 전시했다. 색깔이 예쁘다며 모나 마주크의 작품을 찍어 온 아이도 있었고, 하얀 천을 바다에 펼쳐놓은 한스 하케의 작품에는 '파도 타고 싶다'는 코멘트가 달렸다.

어떤 참가자는 명화가 그려진 우산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기념품숍을 찍기도 했고, 화장실을 찍어 온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이어 빙고게임, 비엔날레 가면, 꼬리타기 등 '놀이'를 통해 노랫말 소재를 하나 찾아나갔다.

참가자들이 가장 재미있게 참여한 작업은 전래 동요 '산도깨비'를 개사한 '비엔날레 노래 만들기 워크숍'이었다.

참가자들이 가장 재미있게 참여한 작업은 전래 동요 '산도깨비'를 개사한 '비엔날레 노래 만들기 워크숍'이었다.

말로 만든 팀도 있었다. 목청껏 뽀내며 노래를 배운 아이들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발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현대 미술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죠. 막연히 전시장을 둘러보기 보다는 자신이 인상깊었던 작품을 사진으로 찍고, 놀이를 거쳐 '노래'를 만들고 즐기는 과정을 통해 미술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결'의 박형주씨는 "아이들만 참여해도 좋지만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4시이며 프로그램 시작 전 한시간 전에 도착 비엔날레를 관람한 후 사진을 찍어오면 된다.

문의 062-432-1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정서 현대 디자인으로 표현하겠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 된 은병수씨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하나의 디자인 운동으로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그림, 소리, 정서를 현대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겠습니다."

10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된 문화컨설팅 그룹 '은카운슬'의 대표 은병수(49·사진)씨는 내년 비엔날레를 디자인과 우리 문화를 접목시키는 행사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신임은 감독은 "국내 대부분의 디자인 행사들이 조명, 전자, 가구 등이 아이템별로 서양의 최신 디자인을 보여주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면서 "우리의 공예, 예술을 현대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획기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이들 행사와 차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비해 감독 선임이 4개월가량 늦어져 작가·작품 선정이 촉박한 것에 대해서도 "재단에 전문 인력이 많아 협업을 통해 준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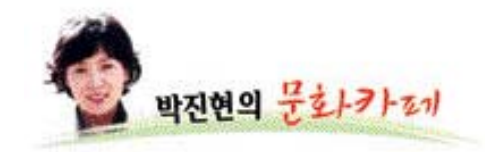
또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업들이 쉽게 산업화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은 감독은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산업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세기세계디자인전 총괄디렉터,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시아 디자인전' 큐레이터를 지냈다.

한편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달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Illex Services,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Large advertisement for Dolphin Electric Boiler, highlighting energy savings and product features, including a detailed table of models and prices.



박진현의 문화카레

너희가 광주비엔날레를 아느냐

미국의 뉴스채널 CNN을 즐겨 보는 시청자라면 'Sparkling Korea'란 이미지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Sparkling Korea'에 도전장을 낸 광고가 등장했다. 'Soul of Asia'를 컨셉으로 한 서울시 홍보광고다.

'Soul of Asia' 해외광고는 '글로벌 서울'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야심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은 고품격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해외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해외홍보예산은 392억 원.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예산 109억의 4배 가까운 규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스폰서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홍보에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전혀 흔들림 없다.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서울을 아시아의 문화도시로 각인 시키는 효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연례보고'라는 타이틀로 개막한 2008 광주비엔날레(9월5~11일)가 중반을 넘어섰다. 최근 오쿠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개막 한 달을 맞아 광주일보와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조목조목 일깨워줬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계기로 '광주'를 처음 알게 됐다. 그는 국제 미술계에서 광주는 '비엔날레 개최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보다 더 유명하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해외홍보비를 평평 쓰는 서울시 예산에서 문득 광주비엔날레를 되돌아 보게 된다. 오쿠이 감독의 말처럼 광주시의 특급 해외홍보사절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엔날레를 정작 우리들은 과소평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